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8.1.26.(금) / 총1매(본문1)	
담당 부서	공항안전환경과	담당 자	·과장 방현하, 서기관 추철규, 주무관 홍광표 ·☎ (044) 201-4347, 4344, 4349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‘활주로 열고 中 전세기 안오고’ 보도 관련

- 지난 화요일(18.1.23) 베트남 다낭발 양양공항 도착예정이던 여객기 회항 원인은 당시 신속한 제설 작업에도 불구하고 강풍(평균 25노트 이상, 경보 발효)으로 눈이 활주로에 계속 유입되는 가운데 한파가 겹쳐 활주로는 결빙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 - 이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통해 제설대응체계를 점검하였으며, 최근 이상 한파가 계속되는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결빙에 보다 효과적인 액상 제설제(3배 비용 소요)를 추가 구입하는 등 동계올림픽 기간 중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
- * 공항은 ICAO 규정에 따라 도로와 달리 항공기 부식 방지를 위해 염화칼슘이 아닌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나, 용빙점을 낮추는 효과는 다소 떨어짐

<보도내용, 서울신문, 1.26조간 >

○ 활주로 열고 中 전세기 안 오고....

- 제설작업 미숙에 여객기도 회항, 활주로 제설작업 미숙이 원인이었다.
- 제설제로 액체 염화칼슘 대신 고체인 염화칼슘만 사용한 탓이다. 등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추철규 서기관(☎ 044-201-434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